

“음악을 통해 지역사랑과 봉사 실천”

20년 음악봉사활동 전개 ‘한소리 음악동아리’ 김영수 회장 … 휘문고 시절 트럼펫 배워



“처음에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들끼리 모여서 음악을 즐기자는 취 지로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왕이면 음악을 통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고 의기투합이 돼서 음악봉사활동에 나서게 된 겁니다.”

음악을 통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단체로 유명한 한소리 음악동아리 김영수 회장(60세, 사진)은 “생업으로 바쁜 가운데서도 음악을 통해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또 남들을 기쁘게 해줄 수도 있다는 게 큰 매력”이라며 “그렇게 회원 모두가 음악에 심취해 살다보니 20년째 모임을 이어오게 됐다”고 했다.

회원들의 성원에 힘입어 20년간 ‘말뚝’ 회장직을 맡고 있는 그는 “지난 1999년경 공사로 인해 연습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는 등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회원들의 음악에 대한 열정과 지역에 대한 사랑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여기까

지 올 수 있었던 것 같다”고 회상했다.

김회장은 마땅한 연습실이 없어 빈집과 외양간 등을 전전하다 어렵게 마련한 연습실이었는데, 인근에서 공사가 진행되면서 물에 잠겨버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새옹지마’라고 했던가. 김회장은 절박한 마음에 군청을 찾아가 연습실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어엿한 연습실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소리 음악동아리는 현재 2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주축은 브라스밴드(관악)와 락밴드(기타, 드럼) 연주자이며, 경기민요를 하는 엄채란씨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브라스밴드 멤버는 김회장(트럼펫)을 비롯해 김영도(클라리넷), 송희현(트럼펫), 안성은(색소폰), 최여름(보컬) 등이다. 락밴드는 권해연(키보드, 보컬), 권오정(기타), 김연희(키보드), 김동운(베이스), 이

연진(드럼) 등이다.

김영수 회장이 트럼펫과 인연을 맺은 것은 고교야구 명문으로 유명한 휘문고등학교 시절 밴드부에 가입하면서부터였다. 군생활도 군악대에서 근무했다.

서울에서 사업에 실패한 그는 지난 1987년 가족과 함께 고성군으로 이주해 현재까지 살고 있다.

김회장은 “연주를 하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고민이나 잡념이 사라지고 오직 음악만이 존재한다”며 “그러다보면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정신이 맑아지는 걸 느낄 수 있다”고 했다.

“한소리 음악동아리는 항상 예비 아티스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문은 늘 열려 있으니, 언제든 노크만 하시면 됩니다. 음악을 배우고 싶은 분들도 환영합니다. 수강료는 없어요.”

〈문의 680-3621〉

최광호 기자

한소리 음악동아리 2011년 정기연주회 열려

음악을 통해 지역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한소리 음악동아리’가 지난 2일 저녁 7시 고성군 문화복지센터 1층에서 또 한 해를 보내야하는 아쉬움을 달래며 가슴 깊이 따뜻함을 전하기 위해 2011년 정기연주회를 개최했다.

300여명이 객석을 가득 메운 가운데 진행된 이날 정기연주회에서는 엄채란 회원의 경기민요 창부타령, 한소리 브라스밴

드의 연주, 시각장애인 가수 최여름양의 공연 등이 이어져 관객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다.

한소리 음악동아리는 오는 8일 고성문화관에서 열리는 4개 음악단체 연합 송년음악회와 15일 시각장애인협회 송년음악회, 17일 불우이웃돕기 1일차집 공연 등 바쁜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

원광연 기자



파인리조트 김재봉 회장이 2011 세종나눔봉사대상 시상식장에서 특별대상을 수상하고 있다.

고성군 토성면 소재 파인리조트 김재봉 회장이 2011 세종나눔봉사대상(대회장 이수성 전 국무총리) 시상식에서 가수

현철, 베세토오페라단 강화자 단장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2011세종나눔봉사대상 특별대상을 수상했다.

□ 파인리조트 김재봉 회장 2011 세종나눔봉사대상 수상

“캐디문화 발전·지역 봉사 공로 인정”

파인리조트 김재봉 회장은 골프장 최초로 캐디 티칭프로 시스템을 도입, 도우미로 머무는 캐디들에게 전문직업인으로서 자긍심과 비전을 갖도록 했다. 또 파인리조트 배 국제 캐디골프대회(2회) 개최를 통해 한국뿐 아니라 캐디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중국, 태국 등 아시아 캐디 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인근 인흥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훈련된 티칭프로를 통

해 주1회 골프교육을 지원하고, 연습을 위해 골프장을 무료로 개방해 폐교 위기의 초등학교를 골프 명문 초등학교로 변모시켰다.

이밖에도 2007년부터 지역주민 초청 ‘참사랑 한가족 그린축제’,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농촌마을 방역 지원 서비스 등 지역 사회발전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파인리조트 김재봉 회장은 ‘건강과 행복을 위한 참사랑 한

가족 레저 문화 창조’라는 경영이념으로 친환경 골프장, 유러피안빌라, 천연온천 아젤리아스파, 리조트 내 한의원 개원으로 고객을 위한 종합 휴양리조트로 차별화를 추구하고 있다.

세종나눔봉사대상은 (사)한국국제연합봉사단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KBS한국방송공사, 중앙일보, 한국마사회가 후원했다.

최광호 기자